**일병목회강좌 히브리서 4강**

2019. 5. 2

**1. 믿음, 역사에 담기다.**

**1) 도입(히11:1-3)**

-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다.

• 믿음 장만 뽑아서 문맥 없이 믿음에 관한 정의라 생각하면 안 된다.

• 왜 신자의 인생이 고단한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막막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마치 태어난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 징계라는 단어는 자식 만들기|파이데이아|라는 뜻이다. 고난이 없으면 너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에게 더 나은 위대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준 시간이며, 그것은 믿음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 결론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 모르는 방법, 모르는 신비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를 나열한 것이다.

**2) 전 아브라함 시대(히11:4-7)**

-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쫓겨난 인류에게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괄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에게 간섭하시고 호의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로 믿음을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땅에 쏟아진 피가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깨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실패와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는 항의이다.

-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자이다. 죽음의 운명 속에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 **노아**에게는 |모두 다 죽이는 판국에|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써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을 보여주셨다.

-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죽을 운명에 있는 그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작정하고 계시고 호의를 역사적 증거로 남겨 놓았다고 시작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믿음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3) 믿음의 조상(히11:8-19)**

- **아브라함**의 생애가 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넘는다.

•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라는 말은 본인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 ‘믿음으로’라는 말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는 ‘신비한 어떤 간섭으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

•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상상보다 큰 것이며, 하나님의 꿈이고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다.

•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만든 모든 세계를 외면하거나 이분법으로 나누어 대하지 않으시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방법과, 그 특단의 조치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이라고 한다.

-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나온다(히6:13-18).

•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했던 약속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맹세로 더 강조되고 있다.

-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다.

•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백세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어떤 곤경과 어느 벽까지 떠밀렸느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당신이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죽음이 가로막지 못하는, 그래서 ‘너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라’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담겨 있다.

•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그 사건이 생각나서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지’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4) 후 아브라함 시대**

-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자여서 예수에게 연결된다.

• 이삭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이미 있음으로써 예수가 신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나오고 죽음을 깨고 부활한다는 것이 역사 속에|조상 속에| 이미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역사 속에 넣어 놨는데 몰랐다.

• 역사가 있어야, 사건이 있어야 단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 개념을 담아낼 단어가 풍성해져야 한다.

•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용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 부족하다.

- **야곱**은 형을 피해 피난 가는 길에 벧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0년간 자기 선택 속에서 살았고, 그 결과로 맞이한 것이 얍복나루 사건이다.

• 모든 것을 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 생각나야 한다.

- **요셉**은 수동태의 생애였다. 꿈을 꾸고, 팔려 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엔 총리가 되는 것까지 모두 수동태이다.

• 고난에 찬 일상의 나날들이 요셉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다.

- 예수는 우리의 이해와 달리 오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드신다.

•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다만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모든 것이 헛된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극치인 영광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며 목적한 것이다.

- **모세**는 최악의 조건에서 태어난 것이다.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방 나그네라는 뜻|이다. 낙이 없는 사람이며 절망에 빠져 있던 자였다. 그의 아들에게 할례조차 주지 않았다.

• 어떤 희망도 의지도 남김없이 사라져야 했던 40년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벌이 아니고 명예이다.

**5) 믿음의 창조주**

- 한 인간의 한계, 역사적 한계, 시대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가를 보아서 언제든지 세상의 위협과 시험을 뚫어야 한다. 절망을 이겨야 한다.

•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롬4:17).

- 아브라함은 생애 전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

•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붙들려 다닌 것이다.

•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이 생긴 것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가진 자 되게 하신다.

- 구원은 지옥 갈 사람 죄 사해서 천국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던 백성 죽음이 전부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그 창조의 목적인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여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6) 믿음의 후예(히11:39-40)**

-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 모세가 훌륭한 것, 다윗이 훌륭한 것이라도 우리가 망하면 꽝이다.

• 믿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일이다. 각자의 몫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는 자기 책임을 다했다. 요셉은 쇠사슬이 그의 혼이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세월을 보냈다.

**2. Let’s Go!**

**1) 위대한 길(히12:5-13)**

-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부름을 받고 있다.

• 위대해지는 과정을 우리보고 친히 해보고 겪고 반응하라고 하신다.

• 하나님은 지금 실력만큼 해보라고 하신다.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한다. 심판이나 해설을 맡지 말고 경기자가 되라.

-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순서라는 것도 만드셨다. 쌓아서 실체가 되라는 것이다.

• 우리는 시간과 공간, 육체라는 것을 무시하고 개념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시공간도, 과정도, 시행착오도, 고민도, 선택을 위한 막막함과 긴장도 없어진다.

•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 최소한의 필수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이 작품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든다. 다만 재미 있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보고 그래서 크고 멋있어지라는 것이다.

- 죄와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생명이 이긴다. 그러나 과정은 엎치락뒤치락이다.

•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없다.

- 히브리서의 증언은 ‘하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 지금이라는 시간은 십자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된 인생을 그 과정 속에서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진행된 과정이다.

• ‘지지마라, 졌냐? 다시 하자’, ‘넘어졌냐? 일어나자’, ‘억울하냐? 한 번 더해보자’. 자꾸 깨우고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징계이다.

• 징징대지 말고 일어나라.

-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에 욥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건 것이다.

•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데까지 떠밀려 갈 수 밖에 없었다. 자기가 아는,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창조를 본다. 창조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는 창조라는 질서라는 뜻이다.

• 없는 것을 새로 주시고, 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는 것이 창조이며 부활이다.

•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로완 윌리암스).

• 창조를 한 번 해놓고 고정되면 그것은 이신론이며, 자연신론이며, 기계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신인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없었던 신약, 예수가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증거들, 믿음의 영웅들의 뒤를 잇는 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 세상이 악함과 폭력과 소멸과 헛됨을 만들 때, 우리는 영광과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감사를 증언하라는 것이 인생이다.

**2) I go..(히12:14-16)**

-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뜻이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는 자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자이다. 장자의 명예를 놓친 것이다.

•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롬8:17).

-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로 증거하셨다. 폭력과 공포를 대표성으로 주장하지 않고 섬김과 지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증언하신 것이다.

-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며, 율법을 줄 때는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증거하셨다면, 지금은 환희와 영광과 소망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다고 말한다(히12:18-24).

•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서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아벨의 피가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망가지게 내버려둘 거냐고 얘기했다면, 예수의 피는 얼마나 더 큰 호소와 더 큰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것이겠느냐고 묻는다.

• 폭력과 공포의 싸움이 아니다.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용기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 탁월성의 일상성(Mundanity of Excellence) (히13:1-5)**

- 우리 일상에 매번, 매일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이기지 못해서는 큰 데에 올 수가 없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위대한 약속들의 훈련은 가장 사소한 데서 된다.